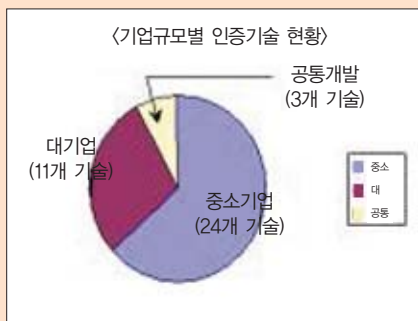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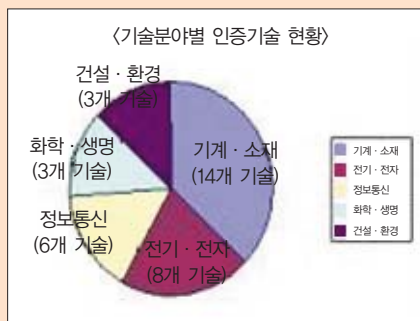


## 2006년도 제1회 신기술(NET) 인증기술 선정·발표



LG전자(주)의 '고효율 냉동사이클을 위한 이중가변용량 왕복동식 압축기 기술' 등 38개 기술이 2006년도 제1회 신기술(NET) 인증기술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기술 인증기술은 기업과 출연(연) 등에서 신청한 124개 기술에 대해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 실사, 이해 당사자의 이의 신청 및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되어 온 KT제도가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제도로 개편된 이래 최초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술이다.

인증된 기술을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계·소재분야 14개, 전기·전자분야 8개, 정보·통신 분야 6개, 화학·생명분야 5개, 건설·환경 분야 5개 등의 기술이며,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전체의 63%인 24개, 대기업이 29%인 11개, 공동개발 기술이 8%인 3개가 선정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신기술로 인증된 기술에 대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 개발 자금 및 시중 은행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우대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보유기술 사업화개발과제 선정

- 연구성과 사업화로 매출 성공 가능한 14개 과제 -

과학기술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06년도 특구 보유 기술 사업화 개발과제로 'OLED 디스플레이 장치용 파워 IC 개발' 등 1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선정은 자유공모로 제안된 총 73개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 전문분석기관(기술보증기금)이 검토한 사업성분석보고서, 연구책임자의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한 1차 평가를 거쳐, 관련전문가(기술, 경영, 금융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평가결과가 우수한 IT분야 7, BT분야 5, ET 분야 2, 기타 1분야 등 총 1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화 개발과제는 7월 중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한 후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사업비는 5억 원 이내)로 모두 30개의 산·학·연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며 '06년도에는 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초대원장에 이현규씨 임명

원자력법에 따라 신설되는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초대원장에 전국립중앙과학관장을 역임한 이현규 원장을 6월 30일자로 임명한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이현규 초대원장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심사관 및 원자력국장 등을 거치면서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총괄하였고, 국립중앙과학관장 재임시에는 뛰어난 기관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등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통제기술원 설립초기에 기관의 위상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등기일인 6월 30일부터 3년이다.



## 생물자원정보 검색·분석 포털서비스 개시

— 총 13만건 수록, 검색시간 단축, 2007년 전세계 1천여개 대형 DB연계 —



2006년 3월 출범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KOBIC ; 센터장 박종화)는 생물자원정보 특화 지식검색서비스와 생물자원데이터베이스 현황 등을 제공하는 국가생물정보 검색·분석 포털 사이트 (<http://www.kobic.re.kr>)를 구축하여 6월 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는 한국내 유전체정보, 생물다양성 및 생물소재의 대표적 포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보건연구원 등 7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내 생물다양성, 생물소재, 유전체 자원의 데이터 약 12만 8천 건을 완전통합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 출연(연) 특성화·전문화 추진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정부출연(연)의 국가 핵심기술 공급기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특성화·전문화 추진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이 발표됐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출연(연) Top Brand Project와 전문연구사업 추진, 연구개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기술혁신체제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PBS제도 보완·발전, 안정적 연구비 확보,

중전의 분산된 생물자원정보 및 생명정보를 한곳에서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10개 이상의 링크에서 3~4개 정도의 링크만으로 원하는 생명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효과와 2배 이상의 검색시간 절약이 기대된다.

또한 단순히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 연구자가 바이오 연구개발에 직접 필요한 생물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유전체정보 분석(10건), 비교유전체 분석(2건), 단백질 기능구조분석(8건) 등의 분석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서비스하게 되고, 이는 선진국보다도 한 발 앞서는 '개방형 위키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고비용 대단위 데이터개발 방식을 넘어, IT위주의 고부가 정보의 자발적 등록, 자동적 최신화에 용이한 새로운 웹 버전 2의 철학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립되거나 방치된 생물자원정보가 공개되고, 타국가들보다도 훨씬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2007년까지 국내적으로는 5개 부처 10개 대형기관과 31개 특수소재은행 등 주요 생물자원정보기관과 연계를 확대하고, 국제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1천 개 이상의 대형 생명정보 DB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세계의 모든 생물자원 검색이 한 사이트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생물학관련 연구자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신약개발에 비용과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게 됨으로써, 선진국보다도 앞서 '개인유전체시대'를 이끌 수 있는 국가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박종화 센터장은 "제4의 물결인 바이오혁명시대에는 생물자원 및 정보를 잘 다루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물자원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상태"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연구원 활용 확대 등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회/연구기관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연구회 기획·조정기능 강화, 연구회 소관기관 재분류 및 특성화 지원, 기관평가제도 개선 등 자율·책임 운영을 강화하며 △연구인력 운영개선, 우수연구원 지원확대, 국제 공동연구 추진, 협동연구 강화 등 연구생산성·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국,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 쾌거

- 화학, 수학, 물리, 생물대회 각각 2위 -



세계의 과학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선교류는 물론 과학적 기량을 겨루는 두뇌 올림픽인 '국제과학올림피아드'가 세계 곳곳에서 열려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흘간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는 67개국에서 740여 명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룬 결과 주최국인 한국은 중국에 이어 종합 성적 2위(금 3개, 은 1개)를 차지했다.

특히, 공식행사(개·폐회식, 축제의 밤, 환영오찬, 환송만찬 등)

와 경시(실험 및 이론경시)는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산업시설 등에 대한 탐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등 과학올림피아드의 국내 유치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많은 노력도 기울였다는 평이다. 한편, 올해 '제47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7월 11일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에서 90개국 498명의 각국 대표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한국대표단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로 종합성적 2위를 기록했다. 또한 7월 8일 싱가포르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91개국 383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37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는 중국에 이어 미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 처음 참가한 일본은 24위(은1, 동3, 장려1)의 성적을 거뒀다.

생물분야 세계 청소년 과학영재들의 경연장인 '제1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7월 9일 아르헨티나의 리오쿠아르토에서 55개국 185명의 세계 각국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한국은 올해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로 종합성적 2위의 성적을 거뒀다.

한편 이번대회기간 중 국제생물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는 2010년 제21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 KAIST 13대 신임총장에 서남표 교수 취임

- 구성원들의 역량결집,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 도약 포부 밝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새 총장에 서남표(徐南杓, 70) 교수가 취임했다. KAIST는 지난 6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3대 KAIST 신임총장에 서남표 美 MIT 기계공학과 석좌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장후보선임위원회가 추천한 徐 신임총장, 신성철(申成澈, 54) KAIST 물리학과 교수, 강성모(姜城模, 61) 미국 UC샌타크루즈공대 학장 등 3명의 후보를 두고 총장선임(안)을 심의했다.

徐 신임총장은 MI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카네기 멜론대학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36년간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공대 혁신을 선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초대 MIT 제조 및 생산연구소장, 기계공학과 학과장, 美 과학재단 부총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생산제조기술 분야 중 플라스틱 제조공정, 금속 제조공정, 마모이론, 설계이론 등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세계적인 석학이며, 공리(axiom, 公理)를 이용한 생산·설계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KBS 해외동포상, 호암상(공학부문), 영국 공학설계원 힐스 밀레니엄상 등을 수상했다. KAIST 이사회는 서남표 교수를 "KAIST를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으로 이끌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판단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徐 신임총장은 "구성원들의 마음과 역량을 결집, KAIST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7월 14일부터 임기 4년의 KAIST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